금주법구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아래에
가을이 개이고 옛 절이 깊은데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을 묵을 제
소나무의 달이 참선하는 마음을 돕네.

-침굉집-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26일 수요일(주간) 제336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송광사 종무전산화 교육

조계종 21교구 본사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가 14~15일 말사 운주사에서 총무 보리스님, 재무 정행스님 등 주요 소임자 4명을 포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교구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구사찰의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강사와 보조진행자등 5명이 수강생들의 질문에 실습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송광사가 이같이 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구본사 차원에서 종무전산화 교육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1월 주지 현봉스님과 재무 정행스님이 종무행정을 전산화하기로 하고 20개월에 걸친 시범실시이후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다.

송광사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외부에서 전문회계사를 초빙하여 자체 재무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회계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고 자료의 깔끔한 정리 및 보관 등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입증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구 내 전 사찰에 종무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하고 교구차원의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송광사는 앞으로 전산교육을 상설화 하여 초, 중,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교육미필 사찰에 대하여서는 종무지도 감사를 통하여 교육이수를 적극 권유키로 했다. 또 스님들의 전산화에 대한 관심 여하에 따라 말사 주지 인사에도 반영키로 하는 등 종무행정 전산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광사는 교구 전산화 첫 단계로 본사 홈페이지에 각 말사 네트워크 방을 만들고 전산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내년 말까지 전 말사에서 종무전산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말사에 컴퓨터 보급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11월 중 2차 전산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 사찰이 홈페이지 개설은 커녕 사이버포교에 대한 관심조차 저조한 불교계 현실에 비추어 이번 송광사 스님들의 전산화 교육은 정보화 시대 인터넷 포교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송광사의 의지가 반영돼 있어 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송광사의 주요 소임 스님과 종무원들이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계 복지시설 후원자 줄고 있다

소쩍새마을 월 중단 369명 – 신규가입 65명

연꽃마을 · 나눔의 집 · 불자련도 운영난 심각

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후원자가 대폭 줄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숙자, 무의탁노인 수용 시설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후원자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강원도 소쩍새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승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는 월평균 3백 69명인데 반해 신규 후원자는 65명으로 한달에 3백여명씩 후원자가 줄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월평균 신규후원자 1백37명임에 비하면 올해 신규 후원자는 현저하게 감소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30여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이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삶 공동체인 나눔의 집, 결식아동과 무의탁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의 교계 복지시설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꽃마을은 7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10%의 후원자 감소를 보이고 있고, 나눔의 집 역시 9월 현재 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8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

후원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 이외에 부족한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메우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후원자 감소로, 비인가 시설인 소쩍새 마을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지원 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 관계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로용지를 이용하는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고 있다"며 "후원자는 보시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 공덕을 느낄 수 있는 후원자 관리의 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식지나 감사편지, 후원금 사용내역 등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후원자를 관리해온 기존의 방식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쩍새 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후원이란 생명의 동등성을 실현하는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실시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계 복지시설은 후원자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후원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자구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남-북 불교 실무회담 11월경 평양서 연다

남북불교계 실무회담이 11월경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종단협 회장단의 방북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조선불교도연맹 참여, 향후 단청지원 등 남북불교 교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는 13일 종단협에 공문을 보내, 남한불교계가 11월 17~24일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늦어도 10월중으로 대표단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템플 스테이' 지원책 적극 검토

문화부 · 월드컵조직위

교계에서 추진 중인 '템플 스테이'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남궁진 장관과 월드컵조직위원회 이연택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월드컵시 사찰을 이용한 숙박은 단순한 숙박대책 차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체험상품개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며 "종단협 등 불교계에서 추진 중인 템플 스테이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10일과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와 문화관광부, 월림픽조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각각 2002년 월드컵대회시 부족한 숙박시설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템플스테이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원우 기자

◇실천승가회, 불교인권위, 정의구현 사제단 등 통일연대산하 11개 종교단체는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美 테러희생자 추모 보복전쟁은 반대"

종교단체들 잇단 행사

종교인들이 미국 테러로 인해 희생된 미국인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연대 산하 11개 종교단체는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헌화의식 및 추모 묵념을 갖고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17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비폭력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백창기)는 15일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는 테러와 범죄의 구조적 단절과 평화를 위해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문화환경평가제 도입하자"

이미경 의원 국감서 주장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환경평가제도'란 대규모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문화시설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해 이에 대한 훼손을 막자는 것.

이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천년고찰 30여곳의 문화재 및 자연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장군죽비

◇사찰 · 불교 단체 인터넷 사이트 '적막강산'. 네티즌 관심 부족 탓하기엔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9면)

◇부처(佛)를 떠나 부처(覺)를 구할 수는 없다. 초기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육성에서 깨달음의 싹을 찾자. (15면)

◇비지정문화재 도난 후 회수율 1%. 먼 훗날 모든 비지정문화재가 사라졌을 때, 지정문화재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 (16면)

◇사찰 폐양초 재활용하는 '관음손 양초공장'. 장애인에겐 일자리로 재활의 빛을, 지구 환경엔 재생의 빛을….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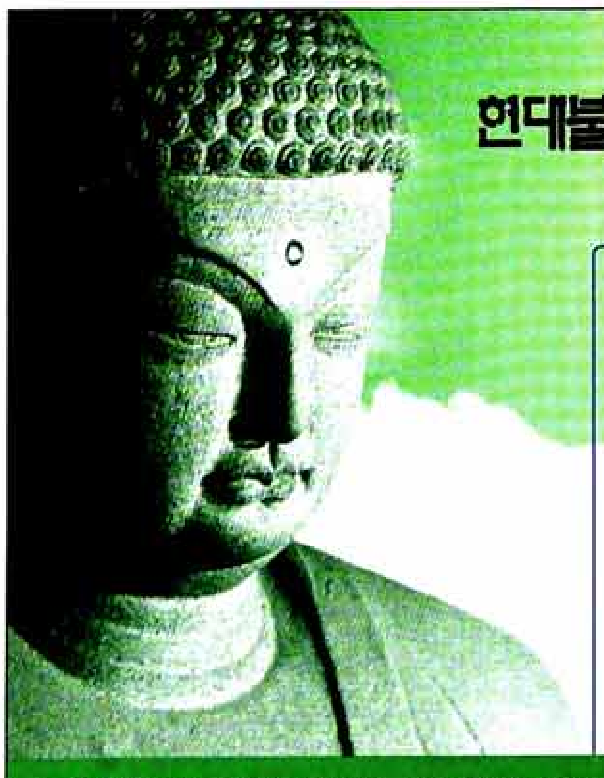
제 7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청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7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5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1년 12월 15일
△당선작 발표: 2002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총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특별이벤트 · 초기 연회비 면제
· 9월 1일~10월 31일 가입자는 S-OIL 4천원 주유쿠폰 증정

서비스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서비스2 주유할인 서비스
서비스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청소년안심보험
서비스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서비스5 스피드 카드론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력서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 02)6678-1115~6
· 부산지사 051)463-5331~2 · 영주지국 054)674-1199 · 목포지국 061)244-4520 · 강릉지사 033)643-5599 · 대구지사 053)768-8006 · 포항지국 054)284-4575
· 충청지사 042)527-0559 · 광주지사 062)375-3986 · 밀양지국 055)353-1196 · 전북지사 063)255-2274 · 울산지사 055)387-1500